



이 학 영 | 우리협회 이사
한국자생어종연구협회 회장
(koreafish@hotmail.com)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버들붕어 ; 풍치어 겸 관상어

학 명 : *Macropodus chinensis*

지역 방 언 : 까발태기, 색붕어, 포도챙이, 팔붕어, 포도각시 등

분 류 : 농어목 버들붕어과

자생 수역 : 우리나라 거의 전 하천 및 중국과 일본에도 서식

주 서식장소 : 물 흐름이 약한 호수, 농수로, 웅덩이, 연못

하천습지대 등

번 식 기 : 6-7월

크 기 : 8센티 내외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잘 알려진 버들붕어는 농어목 버들붕어과의 담수어종이다. 몸은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긴 타원형이다. 머리와 눈이 큰 편이며 옆줄이 없다. 입은 작고 약간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유난히 크며 꼬리지느러미 끝 부분은 부채처럼 둥그스름하다.

몸의 색깔이 자생하는 수역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진한 녹색 바탕에 열개 정도의 암갈색 가로 반점이 줄지어 있다. 아가미 뚜껑 위로 선명한 청색의 타원형 무늬가 있으며 그 테두리는 황색을 띤다. 각 지느러미는 청, 녹, 황, 담색 등의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있다.

주로 수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물살이 느린 수로, 늪, 연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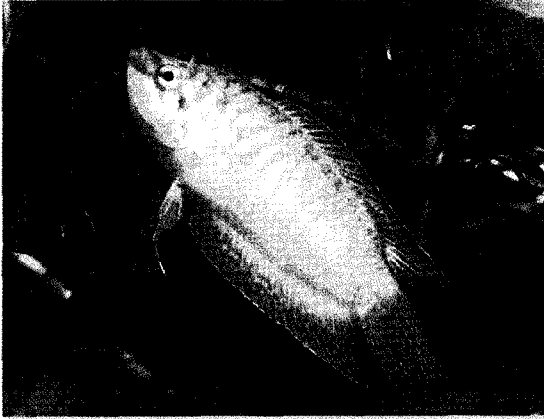
등에 서식한다. 버들붕어는 오염된 환경에도 잘 적응하여 물이 탁한 3급수 수역과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 강한 물고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발견될 정도로 흔했던 이 물고기도 이제는 보기 힘들다. 물살이 느린 지역을 좋아하는 버들붕어의 습성으로 유속이 빠른 계류지역으로는 잘 옮겨가지 않아 농수로나 저수지 등에 살던 이들이 농약과 중금속의 유입으로 폐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버들붕어는 체색을 잘 바꾸는 물고기로 유명하다. 이는 외적으로 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색이자 때로는 위협용이며 번식기에는 자신을 과시하는 몸치장인 셈이다. 조명의 강도에 따라서도 변화가 심한 데 가정에서 기르는 버들붕어를 밝은 창가로 옮기면 더욱 영롱한 체색으로 변한다. 서식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몸 빛깔과 지느러미 길이가 다르다.

번식기의 수컷은 암컷 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길어지며 체색은 더욱 화려해진다. 수컷은 수면 주위를 맴돌며 입에서 뱀어낸 거품을 모아 직경 5-8 센티미터 정도의 산란집을 만들어 암컷을 바늘구멍에 실 꿰듯 둥그렇게 감싸 안고 여기에 알을 낳게 한다. 암컷은 물의 부력에 의해 알이 거품집 밖으로 떠가지 않게 배를 위쪽으로 향하여 알을 낳는다. 알과 깨어난 어린 자어를 수컷이 보호하며 거품집 밖으로 밀려나온 것들은 입으로 물어다 다시 넣어주는 보

호본능을 가지고 있다. 버들붕어의 수컷은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며 다른 수컷이 접근하면 결사항전으로 이를 공격하여 쫓아낸다. 여러 가지 재미난 특성을 가진 버들붕어는 학생들의 관찰용으로 많이 애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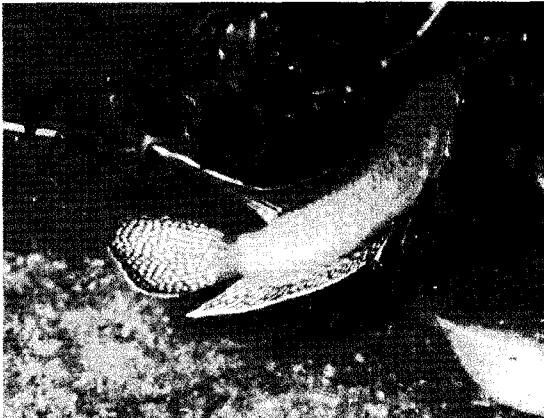
관상용으로도 우수한 버들붕어의 서식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 주변에 저류지, 습지, 인공 수로 등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수초군락과 함께 하상에는 모래펄이 형성되게 해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그림 1〉 버들붕어
수초 사이에서 머리를 들어 먹이를 찾는 버들붕어. 동작이 매우 느리고 천적이 많이 수초가 많은 곳이라야 이들이 몸을 숨겨 잘 살 수 있다.



〈그림 2〉 버들붕어 암수
여러 나라에서 관상어로 기를 정도로 아름다운 우리나라 물고기다. 번식기에는 수컷끼리 세력권을 차지하기 위해 썸박질을 한다. 중국에서는 鱖魚(투어) 시합용으로 인기가 있다.



〈그림 3〉 버들붕어 수컷의 뒷모습
우아하게 헤엄치는 수컷의 지느러미는 금속광택으로 빛난다. 꼬리지느러미는 신선의 부채라고나 할까?



〈그림 4〉 자생지
버들붕어가 등뿔 살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어디쯤에 흐르는 수로. 최근 오염과 남획으로 그 서식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보호대책이 필요하다.